

중소제조업체 96% “전기요금 부담된다”

중기중앙회, 에너지비용 부담현황 조사 발표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신설” 맞춤 지원책 필요

금속가공과 섬유제품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이 비싼 전기요금체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에너지비용 축소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신설 등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 중소기업 293개사를 대상으로 에너지비용

부담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 전기요금 체계에서 전기요금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96%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업종별 평균 매출액 대비 전기요금 비중은 4.48%로, 이 가운데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7.60% ▲섬유제품 제조업 7.1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4.73% 등 3개 업종이 전기요금에 부담

을 가장 크게 느꼈다. 전기사용이 급격히 줄어드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9시까지 전기요금(경부요금)이 오르면 실제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응답은 84.2%로 조사됐다. 이들 중소기업은 경부요금인상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신설(66.2%)과 최대부요금 인하(21.8%)를 꼽았다. 에너지비용 절감과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는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84.3%)를 가장 많이 지목

했으며 ‘고효율 시설·장비 구축 자금 지원’(22.9%)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종사자 수가 적고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일수록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꼽았으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고효율 시설·장비 구축자금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아 기업 규모별로 희망하는 지원정책에 차이가 있었다. 에너지비용절감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설비 특성상 24시간 가동 불가피’라는 응답이 3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지속적인 전기요금 상승추세’ 26.3%, ‘예측 불가능한 거래처 발주패턴’ 26.3% 순으로 답했으며, 주로 외부적인 요인에 따른 애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통상산업본부장은 “중소제조업은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한 설비 특성과 불확실한 거래처 발주 등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어렵다”며 “에너지비용 증가로 중소기업 경쟁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체계 마련과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길용현 기자

현대·기아차, 유럽 진출 올해 100만대 돌파 기대

현대·기아자동차가 올해 유럽 진출 후 41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판매 1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이들 두 회사의 올해 1~8월 유럽 시장 누적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 증가한 71만 5,050대로 집계됐다. 현대차가 9.8% 증가한 37만8,834대를, 기아차가 5.9% 늘어난 33만6,216대를 각각 팔았다. 지난해 연간 판매량이 99만5,383대로 100만 대를 살짝 밑돌았는데 올해는 1~8월 누적 판매량이 작년보다 8.0% 증가한 것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100만 대 판매의 대기록을 달성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 경우 유럽은 최대 시장인 중국, 그리고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연간 판매 100만 대를 돌파한 해외 시장이 된다. /연합뉴스

광주DJ센터서 5~7일 ‘의료산업박람회’ 155개사 300여개 부스...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의료산업 메카로 떠오른 광주에서 의료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의료산업박람회가 열린다. 광주시는 3일 오후 14회째를 맞은 ‘2018 시니어&의료산업박람회’ 가림대중컨벤션센터에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는 광주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한 생체의료용소재부품, 광의료, 정형외과, 콘택트렌즈 등 지역 육성산업 기반 기업과 함께 ICT의료,

의료관광, 헬스케어&뷰티, 고령친화용품 등 지역기업을 포함해 155개사가 300여개 부스로 참가해 국내 의료산업의 미래를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KOTRA 초청 바이어 등 15개국 50여명의 해외바이어가 참여하는 수출상담회가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광주시의 ‘기업 초청 해외바이어 지원사업’을 통해 명진메디컬, KJ메디텍, 덴큐브, 휴덴스, 유니크메디케어 등 광주를 대표하는 20여개 기업이

수출 계약 및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전시장에는 광주시 의료산업의 현황을 보여주는 ‘광주시 의료산업관’이 운영된다. 또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치매 정책세미나 및 치매특별관’도 마련된다. 이상배 광주시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박람회에서는 의료기기, 소재, 헬스케어, 뷰티, 고령친화, 의료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전시하고, 지역기업의 판로개척과 글로벌마케팅 기회를 제공한다”며 “일반참관객들에게는 의료분야 최신 기술들을 선보이는 자리로 많이 방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수 기자



기아자동차는 3일 브랜드 체험관 ‘비트360’에서 일반 고객 30명을 초청해 ‘알쓸신차’ 이벤트를 진행했다. /기아차 제공

카드사 올해부터 필기시험 도입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여신금융회사도 올해 신입사원 채용 때부터 필기시험을 도입한다. 또 채용 과정에 외부 인사를 참여케하거나 채용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부정 합격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예비합격자를 채용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금융업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은행연합회가 올 6월에 만든 모범규준과 큰 틀에서 유사하다. 여신금융업계도 이번 모범규준에서 채용 시 필기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KB국민카드, 우리카드가 올해 채용부터 필기시험을 도입했고, 신한카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 우수회원 등급·자격 유지 개편

아시아나항공은 상용 고객 우대 프로그램인 ‘아시아나클럽’의 우수회원 등급·자격 유지 기준을 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아시아나클럽’ 우수회원은 골드 등급 이상의 회원으로 스타얼라이언스·아시아나항공 탑승 마일 또는 아시아나항공 탑승 횟수 실적을 반영해 ▲골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플러스 ▲플래티늄 등급으로 선정해 왔다. 이번 달부터는 골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플러스 등급에 한해 ‘아시아나 제휴카드 적립 마일리지’ 실적을 추가 반영해 회원들이 더 쉽게 우수회원 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우수회원 자격 유지’ 기준도 기존 대비 탑승 마일, 탑승

횟수 실적을 25~40% 하향 조정했다. 아시아나 제휴카드는 사용액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신용·체크카드다. 이번 개편을 통해 아시아나 제휴카드 적립 마일은 최대 2만5,000마일까지 우수회원 등급·자격 유지에 반영된다. 아시아나클럽 담당자는 “등급 및 자격 유지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회원들이 우수회원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기아자동차 ‘알쓸신차’ 이벤트 실시

기아자동차가 3일 브랜드 체험관 비트360에서 일반 고객 30명을 초청해 ‘알쓸신차’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기아자동차 서비

스 교육을 담당하는 사내 강사의 자동차 관리법 강의 및 실습 등이 진행됐다. 기아자동차는 이날 예비 오너를 위한 차량 할인 쿠폰 등을 제공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NH더하고나눔 정기예금’ 출시를 기념해 영업점을 방문, 1호 고객으로 상품에 가입했다. /농협중앙회 제공

농협 ‘NH더하고나눔 정기예금’ 출시

농산물 가격 안정 도모...김병원 회장 1호 가입

NH농협은행은 지난 여름 자연재해로 가격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해 판매액(연간 평균잔액)의 0.01%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NH더하고나눔 정기예금’을 출시했다. 3일 농협전남본부에 따르면 ‘NH더하고나눔 정기예금’ 상품은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때에는 적정한 가격에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농협인들

지원하고, 가격상승 시에는 소비자가 적정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는 공익형 금융상품이다. 가입기간은 개인과 법인 모두 1개월 이상 3년 이내이고, 최소 300만원 이상 가입이 가능하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출시를 기념해 영업점을 방문, 1호 고객으로 상품에 가입했다.

김 회장은 “NH더하고나눔 정기예금은 가입만으로도 나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다”며 “농협은 앞으로도 농업인과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구현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상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NH농협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영업점, 고객행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민 기자

■ 주최·주관: 목포시·목포시육수민원위원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목포관광공사, 목포관광진흥위원회